



## 영암 F1 후폭풍... 총체적 부실 논란

### 공무원노조, KAVO 감사·예산공개 촉구... 도의회도 별리 가설스탠드 25개 준공승인 안받고 임금체불에 항의 소동

전남도가 F1(포플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후폭풍으로 술렁이고 있다. 경주장 건설을 비롯 입장권 판매, 교통 대책 등 대회 운영 전 과정이 '총체적 부실' 논란에 휩싸이면서 대회 운영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총체적 부실, 책임 규명=전남도청 공무원노조는 27일 'F1 대회 지속운영, 명확한 책임 규명과 대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무능한 행사 운영으로 도민과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운영사에 대한 책임 규명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대회운영법인인 KAVO측의 안일한 준비 행태를 정면 비판한 것으로, 이들은 "가설스탠드 미완성 및 안전 시설 미비, 자유이용권 배부로 인한 좌석다툼, 교통대책 난항, 있으나나한 셔틀버스 운행, 안내표지판 및 안내요원 배치 미흡 등 대회 운영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전 국민 서명운동 등 대회 홍보를 비롯해 기업체와 지인들을 대상으로 한 티켓 판매, 직원 개개인에게 할당되던 티켓 구매에도 불평의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그러나 동내 축제보다 엉성한 대회 준비로 직원들은 현장에서 관람객들의 빗발치는 질타와 모욕을 견뎌야 했

고 뺨을 맞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 노조는 이에 따라 ▲대회 운영사(KAVO)에 대한 분명한 책임규명 실시 ▲진행관련 대행 및 각종 응역 등을 포함한 행사 전반에 관한 철저 감사 및 예산 집행내역 공개 ▲향후 대회 시 티켓 판매, 인원 동원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F1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버리고 있다.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이날 "대회를 지켜보면서 미비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면서

"다음달 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사 과정 전반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대안을 연구하고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 건축물에서 대회 개최=서킷 갈리단은 지난 25일 '경주장 건립 공사 사용승인 전 건축물 사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영암군에 요청했다. 10만2000여 규모의 가설스탠드 25개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갈리단은 대회 연습주행이 이뤄진 22일에도 이갈

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안전 검사는 물론, 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한 대비책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대회 주최측의 대담한 '안전 불감증'에 1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은 채 경기를 지켜본 셈이다.

KAVO와 전남도는 경주장 건설 지연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회 전까지 모든 가설건축물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혀왔다는 점에서 분명히 책임을 묻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주장을 비롯한 주변 시설에 대한 준공 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하는 '영암군 도시계획시설(F1경주장)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았다.

◇'임금체불' 항의 소동=가설스탠드 조립작업에 투입됐던 일용직 인부 200여명은 27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전남도청 지사실에 난입을 시도하다 이를 막는 도청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이들은 "30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2시간30분에 12만원씩 주기로 했던 일당을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사·시공사가 모두 나몰라라 하니 전남도가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행사인 카보와 시공사인 SK건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왜 전남도에 와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서 "카보와 시공사를 상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해 또 다시 KAVO와의 불통을 규명해 드러내기도 했다. /김지욱기자 dok2000@

## 광주 서구청장 김종식 당선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무소속 김종식 후보가 당선됐다.

27일 선거개표 결과 유권자 22만 5485명 중 5만9537명이 투표해 26.4%의 투표율을 보인 가운데 무소속 김종식 후보가 2만2440표(37.88%)를 획득해 2만959표(35.38%)에 그친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와 민주당 김선옥 후보(1만4235표·24.09%)를 제치고 당선됐다. <관련기사3면>

지난 민선 3기 서구청장 출신인 김종식 후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차례 탈락한 뒤 이번 재선거를

■서구청장 재선거 득표수 (★는 당선)

이름	득표수	득표율
★김종식(무)	22,440	37.88%
서대석(참여)	20,959	35.38%
김선옥(민)	14,235	24.03%
박금재(무)	1,594	2.69%
무=무소속 민=민주당 참여=국민참여당		

통해 서구청장 자리를 재탈환했다. 민주당은 지난 6·2 지방선거에 이어 또다시 무소속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고, 특히 비민주당 4당 후보에게까지 밀리면서 이른바 '덜덜 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투표율이 낮은

재선거 특성상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무소속 후보에게 참패를 당해 민주당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야 4당 단일후보인 서대석 후보도 김종식 후보와 끝까지 경합을 벌이며 35% 이상을 획득해 비민주당 4당 단일후보의 지력을 발휘했다.

공성군 가 선거구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태 후보가 46.99%의 득표율로 31.93%에 그친 무소속 조길훈 후보 등을 제치고 당선됐다. 한편, 경남 의령군수 보궐선거에서



는 한나라당 김재용 후보가 7892표(43.6%)로 6886표(37.66%)에 그친 무소속 오영호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장애 넘는 탁구 열정

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46개국 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영주체육관에서 7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비교적 장애 정도가 적은 스탠딩 부문 선수들이 개막전을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18면 /나명주기자 mjna@

## 금남지하상가 붕괴 공동책임... 피해보상도 분담?

### 금광-대립 갈등 가능성

금남지하상가의 붕괴 원인이 지하상가 시공업체의 잘못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공업체의 현장관리 미흡으로 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붕괴 원인이 두 업체에 있는 것으로 결정되면 상가에 대한 피해 보상도 분담해야 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27일 "금남지하상가 붕괴사고 조사위원회가 28일 오전 정밀안전진단 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며 "이해당사자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대립산업, 광주시, 금광기업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지하상가를 시공한 금광기업이 설계와 달리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해야 할 곳을 벽돌로 마감하는 등 시공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아시아문화전당 시공사인 대립산업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에 나서면서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위원회는 보고 있다.

그러나 지하상가 붕괴의 원인을 둘러싸고 당사자인 금광기업과 대립산업이 서로에게 잘못을 전가할 경우 하자보수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태다. 금남지하상가 붕괴에 따른 복구비와

피해액은 모두 50억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사고원인이 밝혀지면 해당 업체가 나중에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피해를 입은 지하상가 내 12개 점포에 7억2200만여원을 우선 지급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의 일부 결함과 시공 중 미흡한 안전대책 등에 그 원인이 있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공사와 금남지하상가 시공사 모두에게 붕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등은 붕괴사고가 발생한 뒤 3억원을 들여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에 붕괴 원인을 가려내기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

### 광주·전남 10곳 등 전국 노후산단 51곳

## 선진국형 기업밸리로 재창조

광주 하남산단 등 광주·전남지역 10개 산업단지를 비롯해 전국 51개 노후 산단이 선진국형 기업밸리로 재창조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4차 국민경제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로생활의 질) 밸리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QWL밸리 조성계획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국가·일반 산업단지 227개 중 20년 이상 경과한 광주 하남산단 등 노후 산단 51곳을 스웨덴의 시스타나 프랑스 소피아 아티볼리스 단지와 같이 첨단산업공간으로 탈바꿈시킬 방침이다. 대상은 광주 소촌·본촌·하남·송암산단과 전남 대불·여수·광양·문광·순천·여수오전 등

광주·전남지역은 총 10곳이다. 정부는 51곳 중 우선 전북 익산과 반월·시화, 남동, 구미 등 4개 산단에 올 하반기부터 3년간 1조3562억원이 투자해 복지·편의시설 등을 확충한다. 익산산단에는 182억원을 들여 원룸형 주택을 짓는다.

또 배움터 형성 사업으로 광주 첨단산단과 전남 대불산단 등 6곳을 산학융합지구 시범단지로 선정, 내년부터 산단 내에 대학과 기업연구소를 입주시킬 방침이다. 우선 지주별로 400여명의 학생, 3~4개 학과 규모의 산업단지 캠퍼스를 만들고, 2015년까지 기업연구소 1000개까지 유치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제1회 광주/전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JET 초·중·고 영어시험 ETS TOEIC Bridge

참가자격: 대한민국 국적의 광주, 전남지역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중학생

참가신청: 신청기간: 2010년 11월 15일 ~ 12월 9일  
신청방법: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 참조

시상내역: 최종 수상인원  
1. 뉴질랜드 1개월 어학연수 20명  
2. 1천만 원 상당 장학금 수여 (105명(초등69명, 중등46명))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www.kwangju.co.kr)

구분	참가 자격	수상 자격	비고	
초등부 (JET)	초등부	JET 초급부문: 1~2학년 JET 중급부문: 3~4학년 JET 고급부문: 5~6학년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 Writing 성적 순으로 최종 심사 ·2순위: 연소자 우선 (생년월일 낮은 순) ·3순위: 해외체류 유 경험자 우선	
	중등부 (TOEIC Bridge)	중등부	중학교 1학년 부문 중학교 2학년 부문 중학교 3학년 부문	

응시료: JET : 22,000원(VAT 포함), TOEIC Bridge : 29,000원(VAT포함)

응시일자: 2010년 12월 19일(일)

응시장소: 광주·전남 지역 지정 고사장(후주 홈페이지 게시예정, 참조)

주최: 광주일보 / 한국 TOEIC 위원회  
시행: 한국 TOEIC 위원회  
후원: 한국 TOEIC 위원회 / TBM, Sisa.com

문의 및 안내: 기획사업국: 062-220-0555  
광주일보(www.kwangju.co.kr) 홈페이지 참조

###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뷔페 - 35,000

특별약인

- 객실: 전 객실 50% 할인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 돌잔치: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월요일 ~ 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연비)

###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